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과 그 반향

이종묵(서울대)*

국문초록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대표작인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은 이언적이 자옥산(紫玉山) 아래 독락당(獨樂堂)에 은거하던 1535년 제작한 작품으로, 15수 연작으로 되어 있다. 이언적은 주자(朱子)가 서재에 머물면서 철학, 윤리, 역사 등을 노래한 〈재거감흥(齋居感興)〉을 변용하되, 숲속에서 은자와 학자, 충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 산림에 물러나 사는 학자의 삶을 노래하는 전형을 만들었다.

7년이 지난 1560년 이황(李滉)은 이 시에 차운한 작품을 남겼는데, 이언적의 맑은 삶을 대체로 긍정하면서도, 은자나 충신보다 학자의 이미지에 집중하였다. 특히 ‘임거’에서 수양의 공부를 하는 방식, 임금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언적의 지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5년 후 다시 〈산거사시음(山居四時吟)〉을 지어 도산(陶山)에서 살아가는 학자의 노래를 새로 제작하였다.

〈임거십오영〉은 이황 이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지제(申之悌), 권필(權鞬), 이희조(李喜朝), 채팽윤(蔡彭胤), 박태무(朴泰茂), 조의양(趙宜陽), 정충필(鄭忠弼), 이야순(李野淳), 이재영(李在永) 등이 이언적의 작품에 직접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e-mail : mook1446@snu.ac.kr

차운하기도 하고 이 작품에 차운한 이황의 시에 차운하기도 하였으며 운자를 따르지 않고 제목만 취한 작품도 나타났다. 권필이 〈임거십오영〉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형상화하였고 신지제가 이를 차운하여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이언적이 붙인 소재목을 따르면서도 운자는 같은 것을 쓰지 않았는데, 한편으로 이언적의 삶을, 다른 한편으로 이황의 삶을 지향하면서도 시인으로서의 맑고 고운 흥취를 담아내어 ‘임거’를 담은 시의 수준을 높였다. 그 후 이희조, 채팽윤, 박태무, 이야순 등은 이황의 시에 차운하면서 이황이 보여준 ‘임거’의 뜻을 추종하였다. 이에 비해 정충필과 이재영, 그리고 근대의 문인들은 이언적의 시에 직접 차운하면서 수양에 힘쓰는 이언적의 삶을 중심으로 하되 이황의 뜻을 절충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의 ‘임거’를 노래하는 전통이 이러하였다.

〈핵심어〉

이언적(李彦迪), 독락당(獨樂堂),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이황(李滉), 산거사시음(山居四時吟), 신지제(申之悌), 권필(權輶), 이희조(李喜朝), 채팽윤(蔡彭胤), 박태무(朴泰茂), 조의양(趙宜陽), 정충필(鄭忠弼), 이야순(李野淳), 이재영(李在永)

1. 서론

정조(正祖)는 주자(朱子)의 문학을 두고, “그 도(道)에 나아가고 덕(德)을 이룬 자취를 알고 싶으면 〈원유(遠遊)〉를 보면 되고, 체용(體用)과 현미(顯微)의 묘리(妙理)를 체험하고 싶으면 〈도가(權歌)〉를 보면 된다. 그밖에 무극(無極)과 태극(太極), 양의(兩儀)와 오행(五行)에서 시작하여 여러 왕과 많은 성인이 인류의 기강을 확립하고 바른 길을 마련했던 것까지를 증험하려면 〈재거감흥(齋居感興)〉을 보면 되고, 어진 자의 산과 지혜로운 자의 물, 하늘을 나는 솔개와 연못에서 뛰노는 물고기, 봄바람의 온화한 기운, 상서로운

햇살과 구름 등은 〈무이잡영(武夷雜詠)〉을 보면 느낄 수 있다.”라 하였다.¹⁾ 주자학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학문으로서의 시학은 주자의 〈원유〉, 〈무이도가(武夷攸歌)〉, 〈무이잡영〉과 함께 〈재거감흥〉이 전범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 하겠다.²⁾

특히 〈재거감흥〉은 1553년 청주에서 따로 간행되었을 정도로, 조선 초기부터 문인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³⁾ 이때 〈재거감흥〉을 조선의 학술과 시학의 풍토에서 재생산한 최고의 작품은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1553)의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이라 할 만하다.⁴⁾ 이언적의 호 ‘회재’ 자체가 주자의 호 회암(晦庵)을 의식한 것이거나 〈임거십오영〉도 〈재거감흥〉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재거감흥〉이 그러했던 것처럼, 〈임거십오영〉은 이언적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산림으로 물러난 학자의 시로서 전범이 되었다. 이 점은 박장원(朴長遠)이 증언한 바 있다.

우리 동방의 유생 중에 회재의 문집이 있는 줄 아는 자가 있는가? 저술은 이 노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시에 참맛이 있으니 극히 아름다운 작품이다. 〈임거십오절구〉는 퇴계(退溪)가 손수 필사해놓고 완미하면서 ‘그 흥중에 흘러나오는 것을 상상함에 누가 이에 미칠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고 탄복하며 싫증을 느끼지 않았다.⁵⁾

-
- 1) 정조, 〈雅誦序〉, 『홍재전서』 262:163. 이하 따로 밝히지 않는 문집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의 권수와 면수를 밝힌다.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참조하여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정조는 〈재거감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람의 마음은 오묘하여 헤아릴 수 없으니, 드나드는 데 氣機를 탄다.”는 구절을 두고 〈혹문감흥시구(或問感興詩句)〉(『홍재전서』 263:373)를 지은 바 있다.
 - 3) 심경호, 「주자 재거감흥시와 무이도가의 조선판본」(『서지학보』 14호, 1994)에서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다. 변동파, 「조선의 〈齋居感興二十首〉의 유통과 수용 양상 연구」(『한국문화』 52집, 2011)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 4) 이언적, 〈임거십오영〉, 『회재집』 24:365.
 - 5) 박장원, 「筓錄」, 『久堂集』 121:405: “我東儒生有知晦老文集者耶, 所著自此老始. 詩有眞味, 極有佳作, 如林居十五絶句, 是退翁手寫表出者也, 玩而味之, 想其流出胸中, 誰有及之者, 敬服無斃.”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은 〈임거십오영〉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차운하여 이언적과 학술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임거십오영, 이옥산운(林居十五詠, 李玉山韻)〉이 바로 그 작품이다.⁶⁾ 그리고 이 영향 아래 신지제(申之悌), 권필(權鞞), 이희조(李喜朝), 채팽윤(蔡彭胤), 박태무(朴泰茂), 조의양(趙宜陽), 정충필(鄭忠弼), 이야순(李野淳), 이재영(李在永) 등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 작품에 차운하였다.⁷⁾ 조선 학자의 작품 중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인학자의 관심에 올랐던 시는 흔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

이언적의 〈임거십오영〉은 대표작으로 인정되어 일정한 성과가 도출된 바 있지만⁸⁾, 이 작품이 당대 혹은 후대 시학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탐색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이언적의 〈임거십오영〉과 후대 여기에 차운한 작품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재의 〈임거십오영〉 제작과 그 성격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옥산서원(玉山書院)이 있고 그 곁에 독락당

6) 이황, 〈林居十五詠李玉山韻〉, 『퇴계집』 29:101.

7) 이들 작품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權好文(1532-1587)이 차운한 작품 〈次林居早春韻〉(『松巖集』 41:249)을 남겼지만 한 수에 불과하고, 黃翼再(1682-1747)도 이황의 시에 차운하여 〈謹次退溪先生林居韻〉(『華齋集』 b64:402)을 지었는데 〈幽居〉, 〈暮春〉 두 수만 있어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8) 李東歡, 「晦齋의 道學的 詩世界」(『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2)에서 선구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여운필, 「회재 이언적의 삶과 시」(『한국한시작가연구』 5집, 2000) ; 장도규, 「회재 이언적의 삶과 임거십오영」(『한국사상과 문화』 16호, 2002) 등에서도 〈임거십오영〉을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조창규, 「濂洛風 漢詩로서의 林居詩 연구 - 회재와 퇴계를 중심으로」(『대동한문학회』 30집, 2009)와 손오규, 「退溪 林居十五詠의 詩世界와 意境」(『한국문학논총』 56호, 2010)에서 이언적과 이황의 작품을 비교하였다. 논의의 방향은 다르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데 큰 참조가 되었다.

(獨樂堂)이 있다. 독락당은 조선오현(朝鮮五賢)의 한 사람인 이언적이 물러나 살던 공간이며, 옥산서원은 훗날 그를 제향하기 위해 세운 공간이다. 이언적은 자가 복고(復古), 호가 회재(晦齋) 혹은 자계옹(紫溪翁)이며, 본관은 여주(驪州)다. 회재는 주자를 조술한다는 뜻에서 주자의 호 회암을 의식한 것이요, 자계옹은 독락당 곁에 있는 자옥산(紫玉山)에서 딴 것이다.

이언적은 양좌촌(良佐村), 지금 양동이라 부르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조부 이수회(李壽會)의 묘소가 경주 아배야동(阿倍耶洞)에 있었는데 부친 이번(李蕃)에 이르러 양동마을로 옮겨 산 듯하다.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이언적은 열 살에 부친을 잃고 외숙 손중돈(孫仲墩) 밑에서 학업을 익혔다. 이후 산사에서 학문에 힘쓰다가 19세에 생원이 되고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하였다. 교서관과 홍문관, 성균관 등에서 벼슬을 하였으며, 세자시강원에서 근무하였다. 이어 이조와 병조의 정랑을 지내는 등 비교적 순탄한 벼슬길을 걷다가 중종 25년(1530) 사간원 사간이 되면서 정쟁에 휘말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듬해 채무택(蔡無擇)이 귀양가있던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복귀를 주장하였을 때, 심언광(沈彦光) 등 조정 관료들이 대부분 이에 동조하였지만, 이언적은 김안로를 소인이라 배척하며 결연히 반대하였다. 김안로가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 그의 처신을 익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언적은 성균관 사예로 좌천되었는데 탄핵이 끊이지 않자 아예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⁹⁾

정심대에서 객은 돌아갈 것 잊었는데
 바위틈에 달은 몇 번 차고 이울었나?
 개울 깊어 물고기는 맑은 물에서 장난치고
 산이 어둡하니 새는 안개 속에서 흐릿하네.
 사물과 내가 혼연히 하나가 되었으니
 나아가고 물러남은 그저 천명을 즐길 뿐.

9) 이언적과 자옥산의 독락당에 대해서는 줄져, 『조선의 문화공간』(휴머니스트, 2006)에서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이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천천히 거닐며 그윽한 흥을 부치니
이 마음의 땅이 절로 유유하구나.

臺上客忘返, 巖邊月幾圓.
澗深魚戲鏡, 山暝鳥迷烟.
物我渾同體, 行藏只樂天.
逍遙寄幽興, 心境自悠然.

이언적, 〈징심대에서(澄心臺卽景)〉, 『晦齋集』 24:362

징심대(澄心臺)는 마음을 맑게 하는 대다. 송의 학자 이통(李侗)은 40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정좌(靜坐)하기를 좋아하였으며 “말없이 앉아 마음을 맑게 하고 천리를 체인할 것(默坐澄心, 體認天理)”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언적은 고향으로 돌아와 맑은 마음으로 살고자 하였다. 마음을 맑게 하면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 들게 되니, 벼슬에 대한 유혹이 마음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이다.¹⁰⁾

낙향한 이듬해인 1531년, 불혹을 넘긴 마흔둘의 나이에 이언적은 양좌동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진 개울가에 강학을 위한 집 10여 칸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다가 후에 독락당이라 하였다. 독락은 『예기』의 “홀로 그 뜻을 즐거워하여 그 도를 지겨워하지 않는다.(獨樂其志而不厭其道)”라고 한 구절에서 나온 말로, 송의 사마광(司馬光)이 독락원(獨樂園)을 경영한 고사와 연결되면서 전원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이언적의 독락당 역시 이를 따른 것이다. 독락당에는 다섯 개의 대가 있었다. 탁영대(濯纓臺), 징심대(澄心臺), 관어대(觀魚臺), 영귀대(詠歸臺), 세심대(洗心臺)가 바로 그것이다. 이언적은 천혜의 아름다운 공간인 이곳에 두 칸의 집을 더 마련하고 정관재(靜觀齋)와 계정(溪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계정 앞뒤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꽃과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10) 吳澐의 〈次朴監司啓賢紫溪十六詠韻〉(『竹牖集』 b5:17)의 〈淨慧寺〉에 따르면 독락당에서 1 리 떨어진 정혜사에 이언적의 친필로 된 이 작품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서 시를 읊조리거나 낚시를 하면서 번다한 세상사를 멀리하였다.

그리고 이언적은 독락당에서 1535년 〈임거십오영〉을 지었다. 중국문학사에서 시인의 거처로서 ‘임거(林居)’를 표제로 한 것으로는 당 왕건(王建)의 〈임거(林居)〉와 이덕유(李德裕)의 〈근납대설유회임거(近臘對雪有懷林居)〉, 송 문동(文同)의 〈임거(林居)〉와 채원정(蔡元定)의 〈임거(林居)〉 등이 확인되지만, 연작시의 형태로 제작된 예는 이언적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났다. 이언적이 한중문학사의 새로운 기원을 만든 셈이다.

이언적의 이 작품은 〈조춘(早春)〉, 〈모춘(暮春)〉, 〈초하(初夏)〉, 〈추성(秋聲)〉, 〈동초(冬初)〉, 〈민한(憫旱)〉, 〈희우(喜雨)〉, 〈감물(感物)〉, 〈무위(無爲)〉, 〈관물(觀物)〉, 〈계정(溪亭)〉, 〈독락(獨樂)〉, 〈관심(觀心)〉, 〈존양(存養)〉, 〈추규(秋葵)〉 등 15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조춘〉, 〈모춘〉, 〈초하〉, 〈추성〉, 〈동초〉, 〈민한〉, 〈희우〉, 〈감물〉 등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독락당에서 사계절 한가하게 살아가는 은자의 모습을 담았다.

산새가 숲 근처서 우는 소리 즐겨 듣는데
 새로 지은 초가 정자는 실개울을 내려 보네.
 홀로 술 마시며 그저 밝은 달 짝을 삼아
 한 칸 집에서 흰 구름과 더불어 산다네.
 喜聞幽鳥傍林啼，新構茅簷壓小溪。
 獨酌只邀明月伴，一間聊共白雲棲。¹¹⁾
 이언적, 〈계정(溪亭)〉

3구의 ‘독작(獨酌)’은 남조(南朝) 송(宋) 포조(鮑照)의 〈원규부(圓葵賦)〉 “홀로 남헌에서 술을 따르고, 금을 타고 외로이 듣는다.(獨酌南軒，擁琴孤聽)”라고 한 뜻이다. 〈계정〉은 ‘독락(獨樂)’의 공간에서 달과 구름을 짝하여 함께 살아가는 ‘은자(隱者)’의 모습을 담았다. 이름 모를 산새 ‘유조(幽鳥)’

11) 『晦齋先生集考異』(이하에서 「考異」로 약칭한다)에 ‘傍林’이 ‘傍簷’으로, ‘茅簷’이 ‘山亭’으로 된 데도 있다고 하였는데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

역시 ‘독락’의 공간을 함께한다. 이언적이 이른 ‘임거’는 이러한 삶을 지향한다. 〈독락〉에서 “홀로 사니 누가 함께 시를 읊조리라마는, 산새와 물고기가 나의 낮을 익히 안다네(離群誰與共吟壇, 巖鳥溪魚慣我顏)”라 한 것처럼 ‘독락’을 즐기는 은자의 벗은 산새와 물고기일 뿐이다.

〈임거십오영〉은 ‘독락’을 즐기는 은자의 모습과 함께 ‘독락’의 다른 이름인 ‘독선(獨善)’의 정신으로 수양에 힘쓰는 ‘학자(學者)’의 이미지를 담았다. 〈무위〉, 〈관물〉, 〈관심〉, 〈존양〉 등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 〈관심〉에서 “본체는 밝은 데서 확인할 수 있기에, 진원을 고요한 가운데서 다시 찾네(本體已從明處驗, 眞源更向靜中尋)”라 한 대로 조용한 가운데서 마음의 참된 근원을 찾노라면, 〈존양〉에서 “인간세상 온갖 걱정 모조리 사라지고, 신령한 근원만 있어 한 점 밝을 뿐이네(人間萬慮都消盡, 只有靈源一點明)”라 한 것처럼, 정치현실의 잡다한 근심이 사라지고 신령한 근원만 밝아진다. 이언적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무위〉 역시 이러한 수양의 과정을 분명히 보여준다.

만물의 변화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데
 일신의 한적함은 절로 때를 따른 것.
 근래 들어 경영에 힘을 점차 줄여나가
 청산을 늘 바라볼 뿐 시도 짓지 않네.
 萬物變遷無定態, 一身閑適自隨時。
 年來漸省經營力, 長對青山不賦詩.¹²⁾

12) 「考異」에서 ‘長對’가 ‘空對’로 된 데도 있다고 하였는데, 별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 구절을 ‘바라볼 뿐’이라고 풀이한다. ‘長對青山’의 용례는 宋 戴復古의 〈樓上觀山〉 “誰家有酒身無事 長對青山不下樓”에서 확인되지만, 조선 중기 이래 우리 한시에 매우 빈번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또 이언적이 明 王守仁의 〈憶別〉 “移家便住烟霞壑 綠水青山長對吟”이라는 구절을 본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뜻을 뒤집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구절에 대해 申緯가 “회재 선생은 수식 배우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늘 푸른 산을 마주해도 한 구절의 시도 없었다지. 즐겨 선생이 수양하던 곳을 보노라면, 이 몸도 도리어 요와 순 임금이 되는구나. 晦齋不屑學操觚 長對青山一句無. 好向先生觀所養 一身還是一唐處”라고 하고 “晦齋有‘長對青山不

이언적, 〈무위(無爲)〉

이 작품의 제목 ‘무위’는 유가(儒家)만 아니라 도가(道家)와 불가(佛家)에 서도 쓰는 말인데, 인위보다 자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언적에게 ‘무위’는 글자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¹³⁾ 변화무 상한 세상만사에 벗어나 숲속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한적함을 즐길 때다. 마음을 영똥한 곳에 기울이지 않아 푸른 산을 보면 저절로 떠오를 시 조차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을 말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 후인들의 칭송이 대단하였다. 이수광(李睟光)은 “말과 뜻 이 매우 높아 구구하게 시를 짓는 자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¹⁴⁾라고 평하였고, 송시열(宋時烈)은 이단하(李端夏), 임방(任墜)에게 보낸 편지에서, 늙어가면서 이 구절을 애송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고 술회한 바 있다.¹⁵⁾ 이러한 평가는 시가 자연스럽게 유출된다는 전통적인 성리학적 문학 관에서 나온 것이다. 정통 성리학적 문학관에서 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며, 도학이 깊어지면 시는 저절로 높아진다고 본다. 위의 시는 고도로 수 양된 이언적의 정신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훌륭한 것이며, 이는 다시 애 써 꾸미려고 한 사장학(詞章學)의 전통에서는 이룩할 수 없는 경지다.¹⁶⁾ ‘독

賦詩’之句, 又曰‘待得神清眞氣養, 一身還是一唐虞。’非操觚家可及”이라는 주석을 붙였다(신위, 〈東人論詩〉, 『警修堂全藁』 291:370). 두 번째 인용한 이언적의 작품은 〈病中書懷寄曹容叟〉(24:367)이다. 해당 구절은 邵雍의 〈觀易吟〉 “一物其來有一身 一身還有一乾坤”을 바꾼 것이다.

13) 『중용』에서 “이와 같이 된 사람은 굳이 보여 주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며,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변하게 하며, 굳이 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게 한다.(如此者,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덕에 의한 교화를 이르는 개념이므로 이언적의 시에서 이른 ‘無爲’와는 차이가 있다.

14) 이수광, 「東詩」, 『芝峰類說』 권13: “語意甚高, 非區區作詩者所能及也.”

15) 송시열, 〈與李季周〉, 『宋子大全』 109:462: “只是老去, 愛誦年來漸省經營力, 長對青山不賦詩’之句.”; 송시열, 〈答任大中〉, 『宋子大全』 111:133: “仍誦晦齋’年來漸省經營力, 長對青山不賦詩’之句, 殊自悚怍也.”

16) 줄고, 「性理學的 思惟의 시적 형상화」(『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에서 이 작품을 분석한 바 있다.

락'과 '독선'의 공간에서 이룩한 수양의 결과가 이러한 미학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임거십오영>은 순수한 '독락' 혹은 '독선'에 그치지 않고 임금에 대한 충심을 잊지 않는 '충신(忠臣)'의 모습도 함께 담았다. 마지막에 붙인 <추규>가 그러하다.

맑은 가을 되도록 꽃을 계속 피우는데
 오솔길 따라 봄꽃과 다투려고 하겠나?
 적막한 산속 집이라 보는 사람 없어도
 붉은 마음 안고 해를 향해 기울어질 뿐.
 開到清秋不改英，肯隨蹊逕鬪春榮。
 山庭寂寞無人賞，只把丹心向日傾。
 이언적, <추규(秋葵)>

추규는 해를 향해 도는 해바라기다. 아메리카 원산의 해바라기가 당시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품종이 이미 중국이나 조선에도 있어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 타의에 의해 부득이 택한 '임거'이기에 봄날의 도리화(桃李花) 같은 간신배와 다투지 않지만, 그럼에도 충심을 잊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언적의 '임거'는 '은자', '학자', '충신'이라는 세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이라 하겠다. '임거' 자체가 주자 <재거감홍>의 "어찌 같으랴, 숲속에 사는 이가, 조화의 근원을 고요히 탐색함과(豈若林居子，幽探萬化原)"라 한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겠지만, 이언적은 자신의 '임거'를 주자의 '재거(齋居)'와 다르게 잡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수 연작으로 되어 있는 <재거감홍>은 조선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거니와, 민우수(閔遇洙)는 "한(漢)과 당(唐) 이후로 주자의 <감홍시(感興詩)> 20수만이 정성(正聲)이 되는데, 위로는 성명(性命)의 근원을 서술하고 아래로는 일용(日用)의 상도를 갖추고 역대(歷代)의 역사까지 미쳤으며, 언어의 의미가 명백하고 의론이 정대하여 「대아(大雅)」와 표리가 되므로, 학자는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읊

조리고 외어 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¹⁷⁾라 한 바 있다. 여기서 보듯 〈재거감흥〉은 도학의 근원을 따지고 일상생활의 윤리를 설파하며 역사에 대해 포괄한 것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¹⁸⁾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서재에서 책을 읽는 학자의 삶을 담은 전형이 되었다.

이언적은 서재에서의 생활을 담은 ‘재거’ 대신 숲속에서의 생활 ‘임거’를 택하면서, ‘은자’의 은일과 ‘학자’의 수양으로 방향을 전환하되 ‘충신’의 연군(戀君)을 추가하였다. 주자의 〈재거감흥〉은 ‘재거’에서 심성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담은 어록(語錄)에 가까워 문학적인 정취가 부족하지만, ‘임거’를 표방한 이언적의 〈임거십오영〉은 맑은 흥취를 느낄 수 있는 운치 있는 시가 되었다. 이 점에서 이언적의 〈임거십오영〉이 자연에 물러나 사는 조선 학자의 삶을 담은 새로운 틀이 된 것이라 할 만하다.

3. 〈임거십오영〉 차운에 담은 이황의 뜻

이언적이 〈임거십오영〉을 제작한 1553년에서 7년이 지난 1560년, 이황은 이 시에 차운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도산서원(陶山書堂)을 낙성한 때이므로, 도산을 경영하는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양식을 모색한 듯하다.¹⁹⁾ 이때 이황

17) 민우수, 〈感興詩集註跋〉, 『貞菴集』 215:441: “漢唐以來, 獨朱子感興詩二十篇, 特爲正聲, 上述性命之原, 下備日用之常, 旁及歷代之史, 辭致明白, 議論正大, 與大雅相表裏, 學者所宜朝夕諷誦而不可廢者也.”

18) 金昌協은 〈재거감흥〉의 네 번째 작품을 두고 魚有鳳이 王과 昭王 이하 역대의 쇠퇴하고 어지러운 시대의 군주들에 대해 말한 것이라 하자, “인심이 형체의 부림을 받아 내달리면 끝이 없다는 뜻을 말하고, 목왕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자 하였던 일로 이 점을 밝힌 것이다.”(『語錄』, 『農巖集』 162:557)라 하여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것도 心性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하였다. 나머지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해서도 心法을 논한 것으로 보았다. 黃德吉의 『朱書』(『下廬集』 260:385)에서 〈齋居感興詩〉 항목을 두고 자세하게 분석하였는데 金昌協처럼 心性의 차원에서 논한 것이다.

19) 이황은 ‘임거’를 제목으로 삼은 작품이 이 시기 〈夏日林居卽事〉(『퇴계집』 29:

은 이언적의 〈임거십오영〉을 전범으로 수용하되 ‘임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이 때문에 이황의 작품은 단순한 차운이 아니요, 이언적의 ‘임거’가 아닌 자신의 ‘임거’를 노래한 것이다. 이황의 작품은 차운한 것이라 하였지만 소제목 자체가 다른 것이 있고 또 아예 운자(韻字)가 같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²⁰⁾

이황의 작품은 이언적의 〈무위〉와 〈독락〉 대신 〈낙시(樂時)〉와 〈유거(幽居)〉라는 이름으로 차운하였다.²¹⁾ 〈추성〉 혹은 〈추회〉는 〈조추(早秋)〉로, 〈존양〉은 〈존심(存心)〉으로 소제목을 바꾸었지만 운자는 동일하다. ‘존양’과 ‘존심’은 모두 주자가 즐겨 쓰던 개념이고 ‘존양’이 ‘존심양성(存心養性)’을 이르기므로 이 둘이 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한〉, 〈감물〉, 〈추구〉는 빼고 〈낙천(樂天)〉과 〈기몽(記夢)〉 2수로 대체하였는데 운자가 아예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세 작품에 대해서 이황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먼저 이언적의 〈민한〉이 차운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추정해보기로 한다.

농가에서 해마다 가뭄을 걱정하는데
근래 숲 속에는 개울물마저 말랐구나.
농부가 은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푸른 산을 다 태워서 화전을 만드네.
農圃年年苦旱天，邇來林下絕鳴泉。
野人不識幽人意，燒盡青山作火田。

102) 한 수만 있다.

20) 〈임거십오영〉은 1575년 慶州府에서 간행한 판본과 1631년 玉山書院에서 간행한 판본이 다르지 않다. 두 종 모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황의 문집은 1843년 중간한 규장각본을 기준으로 삼았다.

21) 「考異」에 따르면 이언적의 〈無爲〉, 〈獨樂〉, 〈秋聲〉 등은 〈樂時〉와 〈幽居〉, 〈秋懷〉 등으로 된 데도 있다고 한다. 독락당의 존재로 인해 이황이 〈獨樂〉이라는 소제목을 따르기보다는 〈幽居〉라는 새로운 제목을 단 듯하다. 『퇴계문집고증』에서 〈幽居〉를 두고 “卜築陶山”이라 주석을 달았는데, 여기서도 이황의 작품은 이언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노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언적, 〈민한(閔旱)〉

이 작품은 3구에서 이른 ‘은자의 마음(幽人意)’이 다소 애매하다. 샘물마저 마른 가뭄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자가 사랑하는 푸른 산이 화전민에 의해 황량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인지 확정하기 쉽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면 후자의 뜻인 듯하다. 통상적으로 〈민한〉이나 〈희우〉 등의 제목을 단시는 농민의 삶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만, 이언적의 작품은 이와 달리 은자의 삶을 노래하였다. 〈민한〉에서 백성이 가뭄을 걱정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은거의 공간인 청산이 소실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희우〉에서도 가뭄 끝에 비가 와서 좋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동방에 큰 가뭄이 없으니, 은자가 구름 낀 바위에 누워 지내리(從此靑丘無大旱, 幽人端合臥巖雲)”라 하여 은자가 살기에 적합한 공간이 된 것에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백성의 고단한 삶보다 은자가 숨어 살기 좋은 공간을 부각하였다는 점이 이황의 마음에 걸렸기에 〈민한〉을 차운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듯하다.

이황은 〈추규〉도 차운하지 않았다. 이언적은 추규가 봄날 피는 다른 꽃과 다투지 않는다 하고 감상하는 이가 없어도 해를 향해 기울어진다고 하였다. ‘임거’에서 이러한 충심의 현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황은 본 듯하다. 그래서 아예 제목을 꿈을 기록한다는 뜻의 〈기몽〉이라 하고 2수를 붙였다. 여기서 이황은 “한미한 신이 병들어 한가함을 얻으니, 광휘를 움막집에서 그려 볼 수 있다네. 태평세월 하분의 책략 갖지 못하여, 미나리와 햇살 바치는 정성 꿈길에 차네(蟻蝨微臣病置間, 耿光圭竇不違顏. 太平愧乏河汾策, 芹暴懸誠一夢寒)”라 하였다. 자신의 은퇴가 노년의 질병과 능력 부족 때문이지만 보잘것없는 미나리와 햇살이라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라 하였다. 이언적이 다른 꽃과 다투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은퇴가 정쟁의 결과임을 암시한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언적이 자신의 마음은 늘 임금을 향한다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알아주지 않는 임금에 대한 섭섭함이 투영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이황은 보잘것없는 능력이나마 적극적으로 발휘할 꿈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귀거래하게 된 것 자체가 성은이라는 뜻을 말한 것이다. 이황은 이것이 물러난 신하의 바람직한 태도라 본 듯하다. 임금을 바라는 뜻 ‘추규’를 택하지 않고 꿈속에서 임금을 본 ‘기몽’으로 대체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황은 이언적의 〈감물〉도 차운하지 않았다. 이언적은 “아침저녁 노을이 자주 새로워지지만, 오직 청산은 고금에 변함이 없다네(煙霞朝暮多新態, 唯有青山無古今)”라 하였다.²²⁾ 〈무위〉에서 만물은 천변만화하여 일정한 형태가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안개와 노을이 그러하다고 하고 청산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니 변함없는 청산에 길이 은거할 것이라 하였다. 이황이 보기에 이언적의 청산이 다소간 세간과 단절된 공간이라 여긴 듯하다. 타의에 의해 정치현실에서 물러난 이언적이 세간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인데 이황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판단하여 차운의 대상에서 뺐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정〉에서 이언적이 달을 짝 삼아 흰 구름과 함께 산다고 한 것을 두고, 이황은 같은 제목의 〈계정〉에서 “다시 작은 정자를 한 굵이에 두었으니, 나무 등지에 깃들인 것보다 나아 좋구나(更把小亭安一曲, 可憐猶勝樹爲樓)”라 하였는데 여기에도 이언적의 ‘임거’가 인간세상과 단절된 다소 도가적인 경향이 있음을 은근히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언적이 〈무위〉에서 아예 모든 인위적인 ‘경영’에서 손을 떼고 시조차 짓지 않겠노라 선언한 것에 대해 이황은 여러 차례 반론을 제기하였다. 다소 도가적인 색채가 있는 개념인 ‘무위’를 대체하여 지은 〈낙시〉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굴신의 변화는 모두 운수에 달린 것
 효상의 움직임은 각기 때가 있다네.
 홀로 태화탕 한 사발을 들이키고서
 안락와 백 편의 시를 길게 읊조린다.
 屈伸變化都因數, 爻象推遷各有時。
 獨飲太和湯一盞, 長吟安樂百篇詩。
 이황, 〈낙시(樂時)〉

22) 「고이」에 ‘煙霞’가 ‘煙嵐’으로, ‘唯有’가 ‘獨愛’로 된 데도 있다고 하였지만 큰 의미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황은 출처(出處)가 하늘에 달려 있어 때에 따른 변화에 순응하여야 한 다면서 ‘임거’로 물러나 살 때에는 소옹(邵雍)의 태화탕(太和湯)을 마시고 안락와(安樂窩)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소옹이 안락와에서 지은 〈수미음(首尾吟)〉을 읊조리는 것이, 변함없는 청산이 아닌 변화하는 천명을 따르는 방도라 한 것이다. 술도 마시고 시도 읊조리면서 천명을 따르고 즐기는 것이 바람직한 ‘임거’의 태도라 보았다.

이황은 학자의 ‘음풍농월(吟風弄月)’을 긍정하였다. 이황은 〈모춘〉에서 “아마도 금을 놓고 일어난 이 후세 사람 아니니, 노나라에서 그 누가 식견이 참되었는가?(不知舍瑟人非後, 東魯何人見得眞)”라 하였는데,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들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말할 때, 증점(曾點)이 금을 타다가 쟁그랑 소리가 나게 금을 놓고 일어나서 ‘육기풍우(浴沂風雩)’의 뜻을 말한 고사를 끌어들었다. 증점이 참된 식견이 있었음을 공자는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광자(狂者)로만 알았다고 하였다. 정자(程子)가 주렴계(周濂溪)를 두 번 본 뒤 음풍농월하고 돌아가면서, “나도 증점과 함께 하리라.”라고 한 공자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일화가 있다.²³⁾ 또 정자는 이 고사를 두고 성인의 뜻과 같으니, 곧 요순(堯舜)의 기상이라 한 바 있다.²⁴⁾ 이황도 이 뜻에 찬동하여 이러한 시구를 남긴 것이다.

이황이 이언적의 시에 없는 〈낙천〉을 넣은 것도 천명에 순응하는 음풍농월이 ‘임거’의 바람직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낙천’은 천명에 순응하는 것이니 그 뜻을 〈낙시〉에서 말하였음에도 다시 〈낙천〉을 한 수 더 넣었다. 여기에서는 기꺼이 하늘의 뜻을 따르되 그 모범은 안연(顏淵)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또 천명을 즐기는 일은 노래로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늘 즐거움은 성인의 영역이라 들었더니, 안연만이 여기서 그다지 다르지 않았지. 우리 이제 하늘을 경외하여야 할 것이니, 즐거움은 그 사

23) 정자의 이 고사는 『通書後錄』(『性理大全』 권3)에 보인다. 崔鳴吉은 〈舞雩亭記〉(『지천집』 89:527)에서 曾點의 浴沂風雩가 한가한 일인데 공자가 탄식한 일과 정자의 이 고사를 들어 학자의 음풍농월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줄고, 「산수와 생태와 문화」(『한국한문학연구』 37, 2006)에서 다룬 바 있다.

24) 『論語集註』에서 程子의 이 말을 인용하여 풀이한 바 있다.

이에 있어 노래할 수 있네(聞道樂天斯聖域, 惟顏去此不爭多. 我今唯覺天堪畏, 樂在中間可詠歌)”라 하였다. 이황은 안연의 삶이 천명을 즐기는 성인의 경지에 들었으므로 이를 배워 천명을 경외하고 즐기며 이를 노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⁵⁾ ‘임거’에서 천명을 즐길 수 있다면 시를 짓고 읊조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황은 정유일(鄭惟一)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이 주재할 수 없다면,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며 산을 유람하고 물을 즐기는 일이라도 정자와 주자의 문하에서는 모두 경계로 삼는다.”²⁶⁾고 하였다. 이는 시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안연처럼 천명을 즐겨 마음을 주재할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위의 시와 연결해서 본다면 천명을 즐길 수 있다면 산과 물, 시와 글씨가 완물상지(玩物喪志)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언적이 <무위>에서 청산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조차 짓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다른 답을 한 것이다.

이황이 이언적과 가장 다르게 생각한 부분은 산림학자로서 수양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한밤에 텅 빈 산에서 의관을 정제하니
 한 점 등잔불 아래 한 조각 마음을 보네.
 본체를 밝은 곳에서 벌써 살펴보았으니
 참된 근원을 고요한 가운데 다시 찾으리.
 空山中夜整冠襟, 一點青燈一片心.
 本體已從明處驗, 眞源更向靜中尋.
 이언적, <관심>

고요히 경을 지녀 옷깃만 단정히 하라

25) ‘不爭多’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뜻의 구어체다. 주자가 志道와 據德, 依仁 이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과 표리 관계를 이루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또한 그다지 다르지 않다(也不爭多)”라고 하고 ‘遊於藝’라는 하나의 다리도 있다고 하였다(『興於詩章』, 『朱子語類』 권35). 이황의 시는 이 전고를 암용한 듯하다.

26) 이황, <答鄭子中>, 『퇴계집』 30:110.

마음을 본다 하면 이것이 두 마음이라.
연평이 이 뜻을 궁구한 것 따르고 싶지만
얼음 향아리 가을 달 멀어 찾을 수 없네.
靜中持敬只端襟， 若道觀心是兩心。
欲向延平窮此旨， 冰壺秋月杳無尋。
이황, 〈관심〉

이언적은 절속(絶俗)의 공간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등불을 마주한 채 조용히 내면을 관찰하는 공부를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황은 이언적의 이러한 공부에 자칫 불가의 참선으로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주자는 ‘심’으로 ‘심’을 보는 것은 ‘심’을 둘로 나누는 불가의 오류이므로 ‘심’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²⁷⁾ 또 주자의 스승 이통(李侗)이 종일 단정하게 앉아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발동되기 이전의 기상을 살피려 하였는데²⁸⁾ 이황은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듯하다. 주자가 이통의 인품을 묘사하면서 이른 ‘빙호추월(冰壺秋月)’의 경지에 들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황은 이통의 ‘관심’의 수양 공부에 이의를 표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황의 은미한 비판은 여러 작품에서 확인된다. 학자가 ‘임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이황은 거듭 다른 생각을 말하였다.

친고에 우뚝한 요순의 사업조차도
뜬 구름 한 점 태허를 지나가는 것.
푸른 시내 앞 깔끔한 작은 정자에서
종일 마음을 맑게 하려 물고기 본다.
唐虞事業巍千古， 一點浮雲過太虛。
蕭灑小軒臨碧澗， 澄心竟日玩游魚。

27) 〈觀心說〉(『晦庵集』 권67) 등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퇴계문집고증』에도 이 고사로 풀이하였다.

28) 『퇴계문집고증』에서 이렇게 풀이하였다. 李侗의 喜怒哀樂未發의 기상에 대한 논의는 『주자어류』(권203)에 보인다.

이언적, 〈관물(觀物)〉

하고많은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득한 근원은 헛된 것이 아니라네.
 선현이 흥을 일으킨 곳 알려 한다면
 마당의 풀과 어항의 물고기를 보시게.
 芸芸庶物從何有, 漠漠源頭不是虛.
 欲識前賢興感處, 請看庭草與盆魚.
 이황, 〈관물(觀物)〉

이언적의 작품에서 이른 요순의 사업은 유가의 목표다. 이언적에게 요순이 이룩해낸 치인(治人)의 경지는 이상이지만, 정치 투쟁에서 패배하여 물러나 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겸선(兼善)이 불가능해진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독선(獨善), 곧 수기(修己)다. 정자가 “태산이 높다 하더라도 꼭대기 위는 산에 속하지 않는다. 당우(唐虞)의 사업(事業)도 요순의 눈으로 보면 또한 한 점의 뜬 구름이 태허(太虛)를 지나간 것일 뿐이다.”고 한 데서 전고를 활용한 것이다.²⁹⁾ 요순이 이룩한 공업이 대단하지만 요순의 마음에는 한 점 구름이 허공을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다. 공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수양이기에 기심(機心)이 없는 물고기의 마음을 배워 흐려진 본심을 맑게 하여야 한다. 이언적은 이러한 뜻을 말하였다.

이언적이 끌어들이는 ‘태허’는 그냥 허공이다. 그런데 이황은 성리학에서 이르는 만물의 시원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태허’가 ‘허(虛)’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산중에서 등불 아래 의관을 정제하거나, 개울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맑게 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마음을 안존하기 위해 그냥 물

29) 郭鍾錫은 〈答鄭文顯〉(『侏字集』 341:418)에서 “泰山雖高矣, 絕頂之外, 無預乎山也. 唐虞事業, 自堯舜觀之, 亦猶一點雲過太虛.”라는 程子の 말을 듣고 “此是程子贊堯舜功業之窺, 而又歎其無迹也, 其意若曰泰山頂上, 更無泰山, 堯舜之外, 更無堯舜. 然自堯舜觀之, 則只是點雲過虛, 此是不與焉之意, 不審如何.”라 풀이한 바 있다. 정자의 말은 宋 楊時의 『二程粹言』(卷下)에 보인다.

고기를 볼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이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마음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궁리(窮理) 공부가 중요하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이황은 정명도(程明道)가 마당의 풀을 베지 않고 조물주의 생의(生意)를 보고자 하였고 물을 담은 작은 항아리에 물고기 몇 마리를 키우며 만물의 자득의(自得意)를 보고자 했던 궁리의 공부법을 택하였다.³⁰⁾

이황은 〈관물〉이 아닌 〈존심〉에서도 이언적의 〈관물〉을 비판하였다. “함께 취해 몽롱해졌다가 문득 깨어나니, 종소리의 성찰을 가장 보존하기 어렵네. 올곧은 공부의 힘 나에게 달린 것이라, 옅은 구름조차 밝은 해 가리지 않게 하소(同醉昏昏儻有醒, 最難操守驗鐘聲. 直方工力皆由我, 休遣微雲點日明)”라 하였다. 주자가 젊은 시절 한 밤에 종소리를 들었는데 종소리가 한번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을 깨닫고 치지(致志), 곧 뜻을 지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성을 하였다.³¹⁾ 그래서 이황은 외물에 기대지 말고 자신이 주재하는 마음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수양에 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구름이 ‘태허’를 지나간다고 그냥 한 말을 두고 이황은 구름이 해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황은 임거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달랐다. 이에 〈임거십오영〉에 차운한 것만으로 자신이 지향한 도산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노래하는 전형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듯하다. 이 점에서 1565년 제작한 〈산거사시각사음공십육절(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絶)〉이 주목된다.³²⁾ 이 작품은 춘(春), 하(夏), 추(秋), 동(冬)의 사계(四季)로 나누고 다시 조(朝), 주(晝), 모(暮), 야(夜)의 사시(四時)에 따라 각기 시를 붙여 도합 16수로 제작한 것이다. ‘임거’가 숲에 사는 것이라면 ‘산거’는 산에 사는 것이니, 이언적보다 삶

30) 『퇴계문집고증』에 “庭草盆魚. 庭草, 見第二篇, 明道書窓前, 草茂覆砌, 或勸之芟, 明道曰, 欲常見造物生意, 又置盆池, 畜小魚數尾曰, 欲觀萬物自得意.”라 쉽게 풀이해놓았다.

31) 『心經附註』 권3에 이 고사가 보인다. 『퇴계문집고증』에도 이 고사로 풀이하였다.

32) 이황,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絶〉, 『퇴계집』 29:131. 이하에서 〈산거사시음〉으로 줄여 부른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함께 〈陶山四時吟〉 등으로 불렸다.

의 공간을 더욱 깊은 곳에 잡은 것이다.³³⁾ 〈임거십오영〉에서 〈조춘〉, 〈모춘〉, 〈초하〉, 〈추성〉, 〈초동〉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황은 〈조춘〉, 〈모춘〉, 〈초하〉, 〈조추〉, 〈초동〉 등으로 정리한 바 있거니와 이를 더욱 확대하여 〈산거사시음〉으로 다시 제작한 것이라 하겠다. 사계절 산속에서 살아가는 학자의 삶을 노래하는 전형으로 삼고자 한 뜻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자의 ‘재거’가 조선에서 이언적의 ‘임거’로 변형되고, 이황의 ‘산거’로 변형되면서 학자가 산수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이황의 〈산거사시음〉 역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³⁴⁾

4. 조선 후기 〈임거십오영〉의 반향

33) ‘山居’라는 제목의 연작시는 唐 貫休의 〈山居詩二十四首〉가 있거니와 宋代에도 方岳의 〈山居十六詠〉, 洪适의 〈山居二十詠〉 등이 알려져 있다.

34) 이황의 〈山居四時〉는 목판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임거십오영〉만큼이나 후대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成渾의 〈與安景容昶〉(『牛溪集』 43:205)에 따르면 성혼이 이 작품을 종이에 적어 安昶에게 주었다고 한다. 또 申益愧의 〈謹書雲谷陶山徽音後〉(『克齋集』 185:470)에는 〈陶山雜詠〉 등과 함께 『陶山徽音』으로 엮었다고 한다. 많은 차운시도 제작되었는데 鄭宗魯, 〈敬次老先生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韻〉(『立齋集』 253:128) ; 李弘有,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遜軒集』 b23:47) ; 權泰時, 〈敬次退溪先生山居四時吟〉(『山澤齋集』 b41:434) ; 朴泰茂, 〈敬次退陶先生山居四時吟〉(『西溪集』 b59:214) ; 李野淳, 〈謹次先祖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韻〉(『廣瀨集』 b102:452) ; 姜必孝, 〈謹次退翁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海隱遺稿』 b108:24) ; 金翊東, 〈江閣, 敬次退陶先生山居四時吟〉(『直齋集』 b120:382) ; 曹兢燮, 〈讀退陶山居四時十六絕, 諷誦之餘, 有動于心, 未能盡繼, 只賦夏四吟寄懷〉(『巖棲集』 350:13) 등이 있다. 그밖에 黃在英, 〈敬次退溪先生山居四時吟〉 ; 都漢基, 〈謹次退溪先生山居四時各四吟共〉 ; 崔東翼, 〈又次山居四時四吟十六絕〉 ; 金得研, 〈又次退溪先生山居四時各四吟共〉 ; 崔蒼述, 〈敬次退溪先生山居四時吟〉 ; 李能九, 〈敬次退陶先生山居四時吟十六絕〉 등을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황의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후고를 기약한다.

이언적의 〈임거십오영〉은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조선이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산림의 처사로 자처하는 학자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거십오영〉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은 몇 가지 계열이 있다. 첫째, 권필과 신지제의 작품처럼 〈임거십오영〉과의 관련을 밝히지 않은 것이 있고,³⁵⁾ 둘째, 이언적의 작품에서 차운한 것임을 밝힌 것이 있으며, 셋째, 이황의 작품에서 차운한 것임을 밝힌 것이 있다. 넷째, 이언적과 이황의 것을 뒤섞어 차운한 것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양상이 있지만 작품의 내용에서는 이언적의 뜻을 따른 것과 이황의 뜻을 따른 것, 혹은 이를 절충한 것 등으로 대별된다.

비교적 단순한 권필과 신지제 등의 작품을 먼저 보기로 한다. 권필(1569-1612)의 〈임하십영〉은 이언적의 〈임거십오영〉과 관련된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조춘〉, 〈모춘〉, 〈민한〉, 〈희우〉, 〈무위〉, 〈관물〉, 〈계정〉, 〈독락〉, 〈관심〉, 〈존양〉 등 소재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언적의 〈임거십오영〉을 바탕으로 하여 지은 것이 분명하다. 다만 운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제목만 가져온 것이라 하겠다. 15수 중 10수만 있으므로 5수는 일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신지제의 〈차권석주필임거십오영(次權石洲韓林居十五詠)〉에서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누락된 〈초하〉, 〈추성〉, 〈동초〉, 〈감물〉 등 5수가 더 보이기 때문이다.

권필의 작품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이언적과 이황의 지향을 따른 것도 있고 이와 무관하게 방달한 시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도 있다. 〈계정〉에서 “숲 아래는 맑은 개울 그 위의 정자, 정자 곁엔 첩첩의 무수한 봉우리

35) 권필, 〈林下十詠〉, 『石洲集』 75:60 ; 신지제, 〈次權石洲韓林居十五詠〉, 『梧峯集』 b12:469. 권필의 작품은 제작 시기가 분명하지 않지만 문집에 이 시가 수록된 순서를 보면 鄭澈(1536-1593), 金德齡(1567-1596)은 죽었지만 具容(1569-1601)은 살아 있을 때 지은 시 사이에 있으므로 1596년에서 1601년 사이 강화도의 草堂에 있을 무렵 제작한 듯하다. 신지제의 작품은 1618년 龜尾村에 물러난 이후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신지제는 이때 지은 〈觀心〉을 다시 고쳐지었는데 〈改觀心作〉(b12:470)이 그것이다. 처음 지었을 때에는 “要喚主翁常在此 管求雞犬放收中”이라 하여 孟子의 放心을 차용하였지만 고친 작품에서는 “觀心還是忘心法 要喚惺惺在此中”이라 하여 마음의 覺醒을 강조하였다.

푸르네. 은자는 술 취해 눕고 해는 저무는데, 온 골짜기 솔바람에 술이 절로 깨누니(林下清溪溪上亭, 亭邊無數亂峯青. 幽人醉臥日西夕, 萬壑松風吹自醒)라 한 것에서는 이언적이나 이황의 시에 보이지 않는 흐트러진 ‘취와(醉臥)’의 모습이 보인다.

이와 함께 권필은 이언적이 지향하였지만 이황이 비판한 절속(絶俗)의 은자를 긍정하였다. <무위>에서 “속세를 피하느라 근래 개울도 안 건너는데, 작은 당은 흰 구름도 함께 살자 나눠주었네. 대낮까지 맑은 창은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저 산새들만 나뭇가지에서 울고 있네(避俗年來不過溪, 小堂分與白雲棲. 晴窓日午無人到, 唯有山禽樹上啼)라 하였다. 속세와 단절하고 백운과 함께 살며, 산새들과 어울리는 삶은 이언적의 <계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 권필은 이를 더욱 운치 있는 시로 형상화하여, 조선 중기 최고의 시인다운 솜씨를 발휘하였다. 이 점에서 권필의 ‘임거’는 이언적이 지향한 은자의 공간이면서 방달한 시인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황이 지향한 학자의 ‘임거’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조춘>을 나란히 보인다.

숲속에 봄이 와서 경물이 새로우니
 시냇가의 복사꽃 살구꽃 생기가 도네.
 이제부터 짙신 신고 대지팡이 짚고서
 물과 산을 찾아 흥이 더욱 참되리라.
 春入雲林景物新, 澗邊桃杏摠精神.
 芒鞋竹杖從今始, 臨水登山興更眞.
 이언적, <조춘>

납주에 어린 봄빛 눈을 비취 산뜻한데
 봄기운이 심신에 알맞음을 막 알겠네.
 처마 아래 새는 손을 부르듯 우는데
 눈 덮인 개울의 매화는 참 은자 같네.
 臘酒春光照眼新, 陽和初覺適形神.

晴簷鳥啣如呼客，雪磻梅寒似隱眞。

이황, 〈조춘〉

이른 봄이라 숲이 청정하고 고고한데
무수한 산새들이 오르내리며 울어대네.

어젯밤 무단히 앞개울에 내린 비로
개울가에 풀싹이 얼마나 돋아났는지.

早春林木澹孤清，無數山禽上下鳴。
昨夜無端南澗雨，澗邊多少草芽生。

권필, 〈조춘〉

이언적의 시에 등장하는 운림(雲林)은 은자의 공간이다. 왕유(王維)의 〈도원행(桃源行)〉에 “당시 산 깊이 들어간 것만 기억하나니, 푸른 개울 몇 번 건너 운림에 이르렀나(當時只記入山深，青溪幾度到雲林)”에 보듯이 속세와 차단된 공간이다. 그곳에서 한적함을 즐기는 것이 이언적이다. 이황의 시는 북사꽃과 살구꽃 대신 매화, 그리고 산새가 등장하여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언적의 시가 봄날의 흥취를 찾아나서는 동적인 분위기라면, 이황의 시는 산새를 벗 삼아 고요히 매화를 즐기는 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이때 권필은 이언적보다는 이황에 가깝다. 숲속에서 산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봄비에 풀이 자라나는 생명의 의지를 보기 때문이다.³⁶⁾ 이황이 ‘임거’ 대신 ‘산거’를 택하면서 지은 〈산거사시음〉에서 봄날의 아침을 노래하면서 “안개 걷힌 봄 산은 비단처럼 환한데, 진기한 새 답하여 온갖 소리로 우네. 근래 산속 집 찾아오는 이 없어, 마당 가득 푸른 풀 마음대로 자라나네(霧捲春山錦繡明，珍禽相和百般鳴。山居近日無來客，碧草中庭滿意生)”라 한 것과 더욱 가깝다.

권필은 작품에 따라 이황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궁리’에 힘을 쏟는 학자적인 풍모도 적극 넣었다. 〈관물〉에서 “태화 가운데 솔개 날고 물고기 뛰노니,

36) 전구와 절구는 鄭夢周의 〈春〉 “雪盡南溪漲，草芽多少生”(『圃隱集』 5:594)에서 나온 표현이다.

만물이 뜨락잡기락 하는 것 기의 응화라. 봄비가 그치자 마당의 풀이 파래지니, 이러한 생의 의지는 사람과 한가지라네(鳶魚飛躍太和中, 萬物浮沈一氣融. 春雨歇時庭草綠, 這般生意與人同)라 한 것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이언적이 지향한 ‘징심(澄心)’의 거경(居敬) 공부보다 이황처럼 ‘어약연비(魚躍鳶飛)’의 ‘자득의(自得意)’와 ‘정초(庭草)’의 ‘생의(生意)’라는 궁리(窮理)의 공부를 따른 것이라 할 만하다.³⁷⁾

권필의 시에 차운한 신지제(1562-1624)의 작품 역시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 <무위>에서는 이언적과 권필이 보여준 삶을 지향하였다. “시원한 초가가 푸른 개울 마주하고, 사람과 산새가 마주 보고 산다네. 배개 배고 북창에 코 골며 자는데, 산새는 무슨 일로 울며 오가는가?(蕭然茅屋面蒼溪, 人與野禽相對棲. 倚枕北窗人鼾睡, 野禽多事往來啼)”에서 보듯이 절속의 공간에서 시인으로서의 방달함이 권필이 지향한 바와 동귀의 것이다. 또 <독락>에서 “푸른 산 병풍 삼고 흰 구름 울을 삼아, 개울의 물소리에 한낮에도 문을 걸었네. 홀로 갔다 다시 오니 끝없는 마음, 만나는 사람 물어봐도 나는 말이 없다네(靑山屏障白雲樊, 溪水聲中晝掩門. 獨往邇來無限意, 逢人有問我無言)”라 한 것 역시 비슷한 경향의 맑은 시라 하겠다. 물론 권필이 그러하였듯이 학자적인 삶도 함께 추구하였다. <조춘>에 차운한 작품에서 “온 뜰 비 내리고 봄바람 부는데, 땅 가득 가는 풀이 돌아났구나(一庭山雨東風裏, 滿地微微細草生)”라 하였고 <관물>을 차운한 작품에서도 “봄비 내린 뒤 푸른 풀 온 뜰에 가득한데, 그 누가 천 년 전 주렴계와 같은가?(綠草滿庭春雨後, 濂翁千載有誰同)”라 한 데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계열은 이언적과 이황의 작품을 섞어서 차운한 것이다. 이희조와 채팽윤의 작품이 그러하다.³⁸⁾ 이희조(1655-1724)는 이황이 이언적의 시를 차

37) <관심>에서 “이 마음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닌데, 조그만 마음 안에 온갖 이치 녹아 있네. 본지풍광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리오? 모두 본래부터 적연한 그 속에 있는 법(此心非色亦非空, 方寸之間萬理融. 本地風光誰解得, 向來都在寂然中)”이라 한 것도 주목된다. 불가의 문자를 사용하여 寂然不動의 공부법을 설파하였다.

38) 이희조, <曾見退溪先生集中, 有次晦齋先生林居十三詠之作, 今日偶然孤坐無聊, 漫次其韻以抒意>, 『芝村集』 170:32; 채팽윤, <林居十五詠敬次兩先生韻>, 『希

운한 작품을 보고 그 운에 차운한다고 하였지만 소재목이나 그 순서가 이언적의 작품을 따르고 있다. 다만 〈민한〉과 〈감물〉, 〈추규〉 세 작품은 빼고 〈낙천〉이 더 들어가 있다. 이언적의 작품을 주로 하되 일부 이황의 작품을 추가하여 차운한 것이라 하겠다. 채팽윤(1669-1731)의 작품은 이언적과 이황 두 사람의 시에 차운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이언적의 작품에서 〈희우〉, 〈감물〉, 〈무위〉, 〈계정〉, 〈추규〉를 빼고 이황을 따라 〈낙시〉, 〈유거〉, 〈낙천〉, 〈기몽〉을 넣었다. 〈추성〉은 이황을 따라 〈초추〉라 하였다. 「고이」에서 이언적의 〈독락〉은 〈유거〉로 된 데도 있다고 하였고 이황의 작품에서는 〈독락〉과 같은 운으로 된 〈유거〉가 들어가 있는데, 채팽윤의 작품에서는 〈독락〉과 〈유거〉가 모두 보인다. 〈독락〉은 이언적의 것을 차운하였지만 〈유거〉는 이황의 것이 아닌 이언적의 〈계정〉에 차운한 것이다.³⁹⁾

작품의 내용에서는 이희조나 채팽윤 모두 이언적보다 이황의 뜻을 따랐다. 이희조가 〈무위〉에서 “한가하여 아무 사업 없다고 말하지 말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를 읊조리리니(莫道閑來無事業, 朝朝暮暮費吟詩)”라 하여 이언적의 지향을 비판하였다. 또 〈관물〉에서 “이언평의 기상 얼음 병 속의 달이요, 안회의 공부는 허한 듯 실하다네. 이 마음에 만 가지 이치 잠겨 있음 알려면, 또한 모름지기 사물을 봄에 솔개와 물고기에서 징험하소(延平氣像冰壺月, 顏氏工夫實若虛. 要識此心涵萬理, 也須觀物驗鳶魚)”라 한 것은 이황의 ‘공리’ 공부를 수용한 것이다. 채팽윤 역시 〈조춘〉에서 “겨울 지나 모든 나무 모두 생의가 있으니, 화려한 꽃의 비로소 참된 모습 볼 겨를 없다네(經寒萬木皆生意, 未假芬華態始眞)”라 하고 〈관물〉에서 “조용한 가운데 참을 절로 얻지 않으면, 이 마음 솔개나 물고기 같음을 누가 믿으랴(不向靜中眞自得, 此心誰信似鳶魚)”라 하여 ‘공리’의 공부를 강조한 것이 이언적보다 이황에 가깝다.

『菴集』 182:229. 이희조의 작품은 1690년, 채팽윤의 작품은 1708년 제작된 것이다.
39) 독락당 혹은 계정에는 이언적의 〈임거십오영〉과 이황이 차운한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었기에 후인들이 적절히 차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황의 차운시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차운한 작품이 가장 많이 전한다. 박태무(1677-1756), 조의양(1719-1808), 이야순(1755-1831), 최동익(崔東翼) 등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⁴⁰⁾ 이 계열의 것은 이황의 15수 전체에서 〈기몽〉 2수를 뺀 13수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박태무나 조의양, 이야순, 최동익의 작품은 모두 〈조춘〉, 〈초하〉, 〈조추〉, 〈초동〉, 〈낙시〉, 〈유거〉, 〈모춘〉, 〈관물〉, 〈희우〉, 〈계정〉, 〈관심〉, 〈존심〉, 〈낙천〉 등 13수로 구성되어 있다.⁴¹⁾ 박태무는 이황의 작품을 ‘한거십삼영(閑居十三詠)’이라 하였으므로 그가 본 이황의 텍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듯하다. 앞서 본 이희조의 작품에서 ‘임거십삼영(林居十三詠)’이라 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황의 문집 혹은 현판 중에 이렇게 된 것이 있었던 듯하다. 또 조의양의 작품은 제목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소재목이 동일하므로 이황의 작품에서 차운한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이황의 작품에서 차운한 데서 짐작하듯이 이황의 ‘임거’를 지향하였다. 특히 조의양은 ‘임거’에 대해 이황이 이언적과 생각을 다르게 가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황의 뜻을 따랐다. 〈관심〉에서 “시동처럼 의관을 정제하고 맑게 앉아, 나의 마음을 보려 하면 이는 단 마음이라. 이 마음의 체용이 나누어짐을 점검하고, 저 불가의 관법을 따르지 말라(如尸清坐整冠襟, 觀我心來別是心. 自驗此心分體用, 無將觀法彼禪心)”고 하여, 이황이 이언적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본 것을 더욱 분명한 언사로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언적의 시에 직접 차운한 것임을 밝힌 계열로는 정충필(1725-1789)과 이재영(1804-1892)의 작품이 있다.⁴²⁾ 그런데 이들은 ‘임거잡영십육절(林居雜詠十六絶)’ 혹은 ‘임거십육영(林居十六詠)’이라 하여 15수가 아닌 16수 연작으

40) 박태무, 〈敬次退陶先生閑居十三詠〉, 『西溪集』 b059:231 ; 조의양, 〈林居十五詠〉, 『梧竹齋文集』 권4,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 이야순, 〈謹次先祖林居詠用玉山韻〉, 『廣瀨集』 b102:475 ; 최동익, 〈謹次退陶林居十五詠〉, 『晴溪集』 권2,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41) 다만 구한말의 문인 최동익은 〈기몽〉 2수를 제외한 13수에 차운하되, 이황의 문집에 두 편이 빠져 있다면서 이황의 다른 작품 〈養生〉과 〈讀書〉에서 차운하여 15수를 채웠다.

42) 정충필, 〈敬次晦齋先生林居雜詠十六絶〉, 『魯宇集』 b89:169 ; 이재영, 〈伏次先祖集中林居十六詠韻〉, 『耐軒集』 권1,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로 된 이언적의 작품을 본 듯하지만 이러한 이언적의 16수 연작은 확인되지 않는다.⁴³⁾ 정충필의 작품은 이언적의 시를 차운한 것이라 하였는데 〈추성〉, 〈민한〉, 〈무위〉, 〈독락〉, 〈관심〉, 〈존양〉 등은 이언적의 작품과 동일하지만, 이황의 시에 보이는 〈낙천〉, 〈기몽〉이 더 들어가 있다. 이언적의 후손인 이재영의 작품은 〈추성〉이 〈추회〉로 되어 있고 〈낙천〉을 하나 더 넣어 16수로 구성하였다.

이언적의 시에 차운한 것을 밝힌 작품은 그 내용에서 이언적과 이황의 지향을 절충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충필은 〈무위〉에서 “산중의 공업이 쓰일 데 없으니, 바가지의 태화탕이 절로 세 끼니라. 아이들 한가함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흘 가도록 시 안 짓는다 의아해 하네(功業山間無用處, 匏樽太和自三時. 兒童未識間中意, 還訝經旬不作詩)”라 하였다. 산중의 공업이 쓰일 데 없다는 것은 이언적의 뜻이지만 태화탕으로 소일함은 이황의 뜻이다. 그러면서 소용의 시를 즐겨 읊조린 이황과는 달리 열흘이 지나도록 시를 짓지 않는 마음은 이언적의 마음이니, 〈무위〉는 분명 이언적의 뜻을 따른 것이라 하겠다. 또 〈관물〉에서 “원래 사물은 하나의 이치인지라, 만 가지 달라짐 궁구함은 빈 마음이라네. 한가할 때 우연히 개울가로 나와 보니, 위엔 솔개 날고 아래 물고기 뛰노네(物物由來同一理, 萬殊窮盡只心虛. 偷閒偶出溪頭望, 上有飛鷲下躍魚)”라 하였다. ‘일리만수(一理萬殊)’, 곧 하나의 이가 만물에 각기 다르게 발현되는 이치를 ‘어약연비(魚躍鷲飛)’에서 찾았다는 점에서는 이황의 ‘궁리’에 가깝지만, 이를 위해서는 ‘심허(心虛)’가 중요하다고 하여 이언적이 〈관물〉에서 이른 것을 따랐다. 경주 하곡(霞谷) 출신의 학자 정충필이기에 이언적과 이황의 뜻을 절충하고자 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이재영의 작품은 이언적의 행적과 함께 독락당의 유적을 시에 끌어들여 심성을 수양하는 맑은 삶을 노래하였는데 역시 이황과 이언적의 뜻을 절충하였다. 〈무위〉에서 “새 울고 꽃 피는 것이 성정이니, 사물의 이치 조용히 앉아 탐구해야 할 것이라. 한가하게 아무 일 없는 것도 기쁘지라, 어찌 시를 읊

43) 이 역시 독락당이나 계정에 걸려 있던 현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릴 힘 허비할 것 있겠나(鳥嚶花發底性情, 物理須探靜坐時. 也喜閑中無一事, 肯輸努力費吟詩)라 하여, 이황의 ‘궁리’를 긍정하면서도 시를 짓지 않는 이언적의 ‘무위’를 따랐다. <추회>에서 “세모에 영약의 소식 끊어지니, 도인은 다시 금경을 말하지 않네(歲暮靈丹消息斷, 道人無復說金莖)”라 하여 ‘영단(靈丹)’, ‘금경(金莖)’과 같은 도가적인 용어를 구사한 것도 이채롭다.

근대의 문인들도 이언적의 시에 직접 차운한 작품을 남겼는데 이종홍(李鍾弘), 김재헌(金載憲), 서석화(徐錫華), 김영수(金榮洙) 등의 것이 확인된다.⁴⁴⁾ 이들은 대개 이언적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이종홍이 <무위>에서 “유유히 세월을 보내니 아무 일이 없어, 근래에 또한 시 읊는 것도 끊었노라(俯仰悠悠無一事, 邇來亦復絕吟詩)”라 하고 <관물>에서 “그 중의 맑은 즐거움을 아는 이 없어, 종일 마음을 맑게 하려고 물고기를 보노라(箇中淸樂無人會, 竟日澄心靜觀魚)”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언적의 뜻과 표현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⁴⁵⁾

5. 결론

이언적이 1553년 자옥산에 물러나 살면서 주자의 <재거감흥>을 변용하여 <임거십오영>을 제작함으로써 산림에 물러나 사는 학자의 삶을 노래하는 전형 형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언적은 이 작품에서 은자와 학자, 충신의 이미지를 작품에 담았다.

44) 이종홍, <謹次晦齋先生林居十五詠>, 『毅齋集』 권1,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김재헌, <謹次晦齋先生林居十五詠>, 『山村文集』 권2,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서석화, <敬次晦齋先生林居十五詠>, 『淸石文集』 권3,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김영수, <敬次晦齋先生林居十五詠>, 『松溪文集』 권1,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45) 서석화의 작품 주석에는 이언적과 이황의 시를 모두 인용하였다. 서석화, 서영수 등의 <무위>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시를 짓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조금 다르기는 하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560년 이황은 이 시에 차운한 작품을 남겼다. 이황은 이언적의 맑은 삶을 대체로 긍정하면서도, 은자나 충신보다 학자의 이미지 하나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거’에서의 공부법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언적의 지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산수간에서 무위의 정신으로 시를 짓지 않겠노라 선언한 이언적과 달리 천명을 즐기면서 시를 읊조리는 것이 학자의 삶이라 하였다. 또 정치 투쟁에서 패배하여 어쩔 수 없이 은거를 택한 듯한 이언적과 달리 임금의 성으로 은거하여 학자의 삶을 살겠노라 하였다. 이황은 〈임거십오영〉을 차운하여 작품을 짓고 나서 5년 후 다시 〈산거사시음〉을 지어 도산에서 살아가는 학자의 노래를 새로 제작하였다. 산림에 물러난 학자의 노래로서 새로운 전범을 마련하고자 한 뜻이 있었던 듯하다.

〈임거십오영〉은 이황 이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언적의 〈임거십오영〉으로부터 50여 년 지난 무렵 권필이 〈임거십오영〉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형상화하였고 신지제가 이를 차운하여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계열은 이언적이 붙인 소제목을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운자는 같은 것을 쓰지 않았는데 한편으로 이언적의 삶을, 다른 한편으로 이황의 삶을 지향하면서도 시인으로서의 맑고 고운 흥취를 담아내어 ‘임거’를 담은 시의 수준을 높였다. 그 이후에도 이희조, 채팽윤, 박태무, 조의양, 이야순 등 여러 문인들이 이 전범을 활용하여 각기 학자로서의 삶을 담아내었다. 이러한 계열의 작품은 산수간에서 사물의 이치를 탐색하고 천명을 즐기는 노래를 부르는 이황의 뜻을 따른 것이 많지만, 정충필, 이재영과 근대의 문인들은 이언적의 시에 직접 차운하면서 수양에 힘쓰는 이언적의 삶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의 ‘임거’를 노래하는 전통이 이러하였다.

참고문헌

- 姜必孝, 『海隱遺稿』,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郭鍾錫, 『俛宇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權泰時, 『山澤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權鐸, 『石洲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權好文, 『松巖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金榮洙, 『松溪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金翊東, 『直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金載憲, 『山村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金昌協, 『農巖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晬光, 『芝峰類說』,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野淳, 『廣瀨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彦迪, 『晦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在永, 『耐軒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李鍾弘, 『毅齋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李弘有, 『遜軒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滉, 『退溪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喜朝, 『芝村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閔遇洙, 『貞菴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朴長遠, 『久堂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朴泰茂, 『西溪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徐錫華, 『清石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成渾, 『牛溪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申緯, 『警修堂全藁』,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申益愧, 『克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申之悌, 『梧峯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吳澐, 『竹牖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鄭夢周, 『圃隱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正祖, 『弘齋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鄭宗魯, 『立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鄭忠弼, 『魯字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曹兢燮, 『巖棲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趙宜陽, 『梧竹齋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蔡彭胤, 『希菴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崔東翼, 『晴溪集』,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崔鳴吉, 『遲川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黃德吉, 『下廬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黃翼再, 『華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楊時, 『二程粹言』, 中國基本古籍庫(DB).
朱熹, 『朱子語類』, 中國基本古籍庫(DB).
朱熹, 『晦庵集』, 中國基本古籍庫(DB).
陳德秀, 『心經附註』, 中國基本古籍庫(DB).
胡廣 外, 『性理大全』, 中國基本古籍庫(DB).

변동파, 「조선의 『齋居感興二十首』의 유통과 수용 양상 연구」, 『한국문화』 52집, 2011, 155~181면.
손오규, 「退溪 林居十五詠의 詩世界와 意境」, 『한국문학논총』 56호, 2010, 587~615면.
심경호, 「주자 재거감흥시와 무이도가의 조선판본」, 『서지학보』 14호, 1994, 3~36면.
여운필, 「회재 이언적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5집, 2000, 69~100면.
李東歡, 「晦齋의 道學的 詩世界」,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2.
이종묵, 「산수와 생태와 문학」, 『한국한문학연구』 37, 2006, 189~218면.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2)』, 휴머니스트, 2006.
이종묵,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장도규, 「회재 이언적의 삶과 임거십오영」, 『한국사상과 문화』 16호, 2002, 63~84면.
조창규, 「濂洛風 漢詩로서의 林居詩 연구- 회재와 퇴계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회』 30집, 2009, 225~255면.

A Study on Hoejae Yi Eon-jeok's *Imgeosiboyeong* and its Effects

Lee, Jong-mook

In 1535, Yi Eon-jeok(李彦迪) wrote his representative work *Imgeosiboyeong* (林居十五詠), a 15 part serial poem, while he resided in Dongnakdang(獨樂堂) under Ja-Ok(紫玉) Mountain. Yi Eon-jeok succeeded and appropriated Juja(朱子)'s *Jaegeogamheung*(齋居感興), a poem written inside Juja's personal library, musing about philosophy, ethics, and history. Then, Yi Eon-jeok wrote his own poem musing about 'the life of a scholar in the forest(林居),' portraying the life as a recluse and a royal subject ; this poem became an example for the later scholars.

In 1560, Yi Hwang(李滉) wrote a poem borrowing rhyme from *Imgeosiboyeong*. In this poem, Yi Hwang concurred with Yi Eon-jeok's uncluttered lifestyle ; however, he put more emphasis on portraying life as a scholar, compared to that as a recluse or a royal subject.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he life of a scholar in the forest,' Yi Hwang expressed different interpretations from Yi Eon-jeok's on the studying method and the attitude towards the king ; these differences can be interpreted as Yi Hwang's implied criticism towards Yi Eon-jeok. Five Years later, Yi Hwang wrote another poem, *Sangeosasieun*(山居四時吟) in which he sang a portrait of a scholar's life in Dosan(陶山).

Ever after affecting Yi Hwang, *Imgeosiboyeong* has had prolonged effects on the poetry of the later scholars such as Sin Ji-je(申之悌), Gwon Pil(權驛), Yi Hui-jo(李喜朝), Chae Paeng-yun(蔡彭胤), Bak Tae-mu(朴泰茂), Jo Ui-yang(趙宜陽), Jeong Chung-pil(鄭忠弼), Yi Ya-sun(李野淳) and Yi Jae-yeong(李在永).

Some of them borrowed rhymes from Yi Eon-jeok or Yi Hwang's poem, and some of them wrote poems only borrowing the title. Gwon Pil accepted the theme of *Imgeosiboyeong* and tried to portray his own life, and Sin Ji-je wrote a similar poem by borrowing rhymes from Gwon Pil's poem. In terms of poetic format, these two poets followed the sub-headings of Yi Eon-jeok's poem, but did not borrow the rhymes. While showing their will to follow Yi Eon-jeok and Yi Hwang's lifestyles, their poems also convey a clear and pleasant sentiment, which elevated the quality of poetry musing about 'the life of a scholar in the forest.' Afterwards, poets such as Yi Hui-jo(李喜朝), Chae Paeng-yun(蔡彭胤), Bak Tae-mu(朴泰茂), and Yi Ya-sun(李野淳) not only borrowed rhymes from Yi Hwang's poem but also followed Yi Hwang's attitude and will. On the other hand, modern literari such as Jeong Chung-pil(鄭忠弼) and Yi Jae-yeong(李在永) borrowed rhymes from Yi Eon-jeok ; their poems focused on Yi Eon-jeok's self-cultivation, but also conveyed the agreement on Yi Hwang's philosophy. The aforementioned poems allow us to picture the Confucian scholars' poems which mused about 'the life of a scholar in the forest'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Yi Eon-jeok(李彦迪), Dongnakdang(獨樂堂), *Imgeosiboyeong*(林居十五詠), Yi Hwang(李滉), *Sangeosasioeum*(山居四時吟), Sin Ji-je(申之悌), Gwon Pil(權躡), Yi Hui-jo(李喜朝), Chae Paeng-yun(蔡彭胤), Bak Tae-mu(朴泰茂), Jo Ui-yang(趙宜陽), Jeong Chung-pil(鄭忠弼), Yi Ya-sun(李野淳), Yi Jae-yeong(李在永)

논문투고일 : 2018. 09. 30.

심사완료일 : 2018. 10. 20.

게재확정일 : 2018. 10. 26.

